文壇半世紀 ❶

韓國文壇이 걸어온 발자취를 에피소드 중심으로 풀어보는 「文壇半世紀」가 「頭鶴수첩」에이어 소개된다. 文壇에 얽힌 秘話, 文人들이 남긴 갖가지 逸話들로 엮어진다.

<편집자>

六堂과 최초의 新體詩

『터…ㅁ섹, 터…ㅁ섹, 턱, 빠…아, 따릅다, 부슨다, 문히 바릅다, 泰山갓흔 놉흐피, 덥게갓흔 바위스돌이나 오지이 부어야 요게 부어야 나의 큰 힘 아니냐, 모르나냐, 호통까지 하면서 따릅다, 부슨다, 문히바릅다, 터…ㅁ섹, 터…ㅁ섹, 턱, 턱, 뿌르릉 빡.』

흔히 韓國新詩의 남상(濫觴)으로 일컬어지는 崔南善의 「海에게서 少年에게」가 발표된 것은 지금부터 六十五년 전인 一九〇八년十一월 近代雜誌의 효시로 치는 「少年」誌 창간호에서였다. 이미 李朝의 사직(社稷)이 기울고 傳統의 思想과 文化가 파산되어가고 있을 때 十九세의 소년 崔南善은 『우리大國으로 하야곰 少年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야면 能히 이 責任을 감당하도록 그를 敎導하여만』(「少年」 권頭言)고 외치면서 그스스로 소년들을 향한 少年을 주제로한 少年다운 뜨겁고 순수한 정열이 불꽃튀는 時를 썼던 것이다.

一면 六堂 송건호 四十二 핵의 「海에게서 少年에게」는 三·四조 四·四조의 열렬한 창가 또는 찬송가의 형식을 대담하게 깨뜨려 의성음(擬聲音)까지 도입한 파격적인 시도였다. 그리고 이 시의 섬섬한 기상을 고무하고 전래적인 사고습관에서 젊은 이들을 깨워 대조시킨점, 특히 망망한 바다에 도전하는 젊은 기상을 주제로 한 격렬한 글로 구축되었다. 가 뿜어나온 六堂은 再留學 길에, 東京에 다시 건너가 東洋史를 독파코자 大地理歷史科에 들어갔다. 때마침 「아세다」 大學生會가 朝鮮王室을 돌리려는 저의로 연례적인 模擬開會式을 「朝鮮王 來朝에관한 件」으로 결정하자 이때학에 유학중인 七十여 韓國人學生이 집단 항의, 자진퇴학을 했다. 六堂도 이때 유학은지 석달만에 留學을 포기하고 대신 文化事業을 위서 祖國을 근대화할 결심으로 東京에서 제일론 인쇄소인 秀英舍에서 인쇄기 주조기 자모활자 1벌의 인쇄공과함께 귀국했다. 이때가 一九〇八년 겨울이었다.

19세때 「海에게서 少年에게」 첫발표

雜誌「少年」펴 허탈의 青少年 기상깨워

新體詩를 발전시킨 六堂 崔南善 (中央高普敎師시절) 과 그가 19세때 창간한 「少年」誌 첫호.

日帝에 抵抗 留學포기한채 印刷工과함께 귀국

作家와 敎養

L씨의 「創作과 모방」을 반박함

南 寬

옛날 화가들은 기교만 가지고도 좋은 작가가 될수 있었지만 近代에서는 표상과 思想과 같음이 기교를 첨가해야 한다. 더욱 二十세기에 들어서는 많은 流派의 출현으로 눈부시게 변천하는 미술계에서 독창적인 작가가 되려면 적어도 그변해가는 파장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과 이해와 視野를 넓혀야 한다.

물론 사람에서 근시안적으로 일을 한다면 자기만이 獨創的인 작가로 착각을 하는수가 있다. 그것을 넓은 시야에서 볼때 어느선배가 먼저한 일인줄도 모르고 自讀적인 작가가 되고만다.

지난 三월二일자 동아일보에 「創作과모방」이라는 제목로 심린L씨의 글을 읽고 그의 자화자찬에 놀랍기 가없는 나는 역시 그 글을 읽고 놀란 취지 후배들의 권유도 있고하여 이 글을 쓰지않을 수 없게되었다. 그 글중에서 例를 들면 그는 자기의 그림을 「종이 붙이기는 彩形文字를 바탕으로한 독창성의 발견과 藝術化에 대한 집념의 所産이었음을 누구나 다 잘아는 일이라 믿는다」고 하였는데 이말은 너무나 美術史潮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종이붙이기는 「콜라쥬」에 뿌라주」라해서 벌써 半世紀도 훨씬전에 「브라끄」「마띠스」「주앙그린」「피카소」등이 한 일이며 많은 다다이즘의 藝術들은 그 방법을 화면에 도입해서 훌륭한 作品을 만들었다.

또 文字를 화면구성에 이용한것도 역시 二次大戰以후의 「브라끄」「콜 뜰레」「피카소」「슈위테르」「그로츠」등 많은 화가들이 이용했는데 대전후에는 글자를 이용해서 화가들이 글자를 이용해서 추상적 COCK)의 유명한 저서 「中國繪畫의 서론」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있다.

「中國의 文字를 전점 彩形서 커가면 추상화에 가까와진다.」 이말은 추상적인 일을試圖하는 작가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다.

이러한 미술계의 動向을 L씨가 모를리는 없는데 그것을 알고있으면서도 「콜라쥬」나 「뿌라주」나 상형文字를 화면에 이용하는것을 자기가 창조한것처럼 생각한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너무나 왜곡된 생각을 이 기회에 밝혀두고싶다. 또 그는 「요히 모방과 影響을 혼돈하는데 영향이란 한사대에 같이 사는 사람끼리 호흡하며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만 있을수있는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 역시 잘못된 理論으로 생각한다. 「피카소」의네오클라씨씨즘은 「그리스」의 古代조각에서 영향을받은 사실을 그는 알고있는가. 그는 그것을 모방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어린 아이들도 알고있는 상형문자로 이루어진 古代 「에집트」 壁畫를 작품에 응용한 현대의 작가의것도 影響이이니고 모방이라고 한다면 소위 그가 창조했다고 自讀하는 상형문자가 「에집트」 벽화에 있는 상형문자나 「콜 뜰레」의 「루도제」(一九三八년작)와 흡사하니만큼 그의 이론을 긍정하기로 한다면 이는 곧 자신이 모방했다는것을 인정하는것 밖에는 되지않는다.

<南 寬씨>

모든화가는 자신의 內的發展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물이든지 작품에 이용할 自由가있다. 물자나 상형文字를 화면에 이용함수도있고 종이 혹은 다른 물체를 붙이거나 어떤방법을 쓰든지 작품을 위해서는 무관한일이다. 그것은 「브라끄」나 「피카소」가 똑같은 병이나 사과를가지고 튜비들의 本質을 추궁했지만 각자의 表現方法이 달랐으며 後期印象派에 속하는 「세잔느」의사과나 병은 그들과는 또 다른 實在感을 나타냈것과도 같이 그것은 같은물체를 빌었을뿐 각자가 다른 새로운形態와 空間을 追求했을뿐이다. 그것은 모방도 영향도아닌 그들 자신의 個性表現이었으며 그들이야말로 非凡한 창조적인 작가들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창조자가 되려면 시야를 넓혀서 위대한 작가들이 걸어온 길을 이해하고 화단의 조류를 판단할수 있는 敎養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理論이 아닌 피변으로 자기선전을 목적으로한 글은 쓰지말것을 L씨에게 부탁한다.

<弘大교수>

「變해가는 畵壇흐름」 알아야 非凡한 創作가능

이글은 本紙三月二日字 五面에 실린 李應魯씨의 時論 「創作과 모방」에 대해 반박하는 글이다.

<편집자>

東亞詩壇

恨 Ⅲ

柱

아니면, 敗者
긴 달을 홀 읽다.

東

열음은
고독으로 표출한다.

李

푸른 나무 그늘에 앉아
한한 정승이나 부르며,
쓰러진 시체 위엔
향기있는 꽃잎을…

빠른한 가위질로
人生은 적막하다.

特유의 유머·위트로 爆笑滿發

外國人韓國語웅변大會

○十二일 오후一시 전설 회관 강당에서는 靈感한 청 학자간 七분동안에 특유의 액센트와 유머로 유창없이 자 기의견을 펼치는가하면 어려운 主題와內容으로 古語體까지 동원하는등 열변 경쟁을 벌였는데….

○최우수상인 대통령賞을 받은 미국인선교사 루이스 엠 머스톤」여사(二九)는 「현재에 처음 한국말을 쓴 때」라는 주제로 그녀가 겪은 에피소드를 소개, 장내를 크게 웃겼다. 그러나 불과 七개월 밖에 한국어를 못배운 그녀의 한국어표현은 거의 완전했다. 「잔깐」을 「장칸」으로 하는등의 된소리발음이 불완전했으나 차표를 잘못산줄 알았을때 「아뉘! 하더군요」라는지 의출했다가 집에 「안전하게 돌아와서 만세!」라고 크게 소리쳤다」라는등의 적절한 표현과 언어는 뛰어난 솜씨였다.

○十二명의 외국인들이 제 목안밖에 한국어를 못배운 그 녀의 한국어표현은 거의 완전했다. 「잔깐」을 「장칸」으로 하는등의 된소리발음이 불완전했으나 차표를 잘못산줄 알았을때 「아뉘! 하더군요」라는지 의출했다가 집에 「안전하게 돌아와서 만세!」라고 크게 소리쳤다」라는등의 적절한 표현과 언어는 뛰어난 솜씨였다.

亞洲工大開校

佛서技術支援얻어

水原市외곡洞에 세워진 亞洲工業初級大學(學長金國男)이 十二日개교식을 가졌다. 「프랑스」政府의기술협조와敎授파견등 積極文化協定에따라 세워진 동大개교식에서 「랑디」「프랑스」大使(前)는 朴鼎源이사장에게 文化勳章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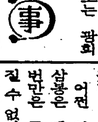
萬海文學賞 제정

「創作과 批評」社

季刊 「創作과 批評」은 창간八주년을맞아 「萬海文學賞」을 제정, 七四년초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詩人이며 思想家, 승려인 韓龍雲선생의 文學精神을 기리기위한 「萬海文學賞」은 一년동안 발표된 詩 小說 評論등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 선정하는 作品賞의 성격을 갖는다.

文英愛피아노독주회

17일밤 서울大音大홀



서울大音大와 同大學院을 나와 濟州女師大에 出講하고있는 文英愛양(사진)의 이날밤 데뷔 독주회는 「바하」의 「파르티타 一번」「슈만」의 「소나타G단조」「쇼팽」의 「발라드단조」등.

中等학생美術實技대회

新紀錄 28일 경복궁

미술단체 신기회(회장 이상훈)는 제회 중등학생 미술실기대회를 二十八일 十二시부터 경복궁에서 연다. 참가종목은 서양화(구채 연필 유채) 동양화 판화 구성등으로 중고교생에 국한하고있다. 접수마감은 二十五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총무과로부터 또는 광희중학교.

文化行事

◇선전 새마을 신대학 개강식=十六일오전十시 성신여사대 강당에서. 「새마을운동」「생활의 과학화」「가정의례」등 九개 과목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

◇연세대 신과대학 제十五회 신학주간개최=十七일부터 이틀간 새문안교회에서. 학술국교수 「(이스라엘)의 민족倫理」김찬국교수(유대교과 학대 「이스라엘」) 이상호교수(신학윤리과 학대)

◇이대 신문방송학과 보도사진전=二十一일부터 二十四일까지 예술학회에서. 주제 버스안 내원, 작품 六十점

◇「다빈치」미술학교강좌=十五일부터 二十一일까지 삼륜빌딩에서 접수처 四三-七四八〇

◇제二회 韓南서예연구원전=十三일부터 十八일까지 국립공보관에서 출품 李允燮 朴昇金正和등 五十여명

洪吉童 (329)

金 朴 淵 世 作 鍾 禧 畵

첫싸움 ㉙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제 오행동안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한 착각을 느낄만큼 고요한 속에서 삼룡은 얼떨떨하여 있었다. 아직도 아주 어두우려면 한참 있어야만 시간이었다. 계집은 눈을 깜박거리면서 오도카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속곳과 솜버선 사이로 계집의 토실하고 하얀 다리가 엿보였다. 삼룡은 물을 조금 급혀서 계집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계집은 그대로 쌀쌀한 표정을 지어 많은 생각을 품은 눈으로 한곳을 말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여계.』

삼룡은 조용히 불렀다.

계집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삼룡은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 진만큼 벌간 의로움을 느꼈다. 계집이 칠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서러운 이별을 뜻하는 것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이었다.

『여계…』

『자네가 정 그렇다면 할수 없네, 그 동안 이 못난놈 때문에 고생 무던히 하였어… 내가 여러번 말했지만 나도 남처럼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 을치고 있지만… 그놈의 일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못돼서 공연히 자네 허송세월 보냈네. 파히 욕하지 말게나. 옛네…이거 노자나 하게.』

가지고 있던 관전 스무냥을 계집에게 밀어주고 삼룡은 수하여 생각을 하다가 며 앉아있기 괴로와 움직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어딜 가세요…』

계집은 삼룡의 바지가랑이를 잡아 붙들면서 앙칼스럽게 말했다.

『난 그만 산채로 올라 가네.』

삼룡은 어리둥절하여 계집을 바라보면서 나직이 대답했다.

『남의 몸을 맡겨놓고 돈주고 가면 장수명인줄 아세요.』

『지금 그것 따져 뭐하나…』

『날 죽이고 가서요.』

『적신 하려나?』

東亞案內

家庭儀禮準則을 지킵시다

親知에게 負擔이 되는 請牒狀을 돌리지 말고 新聞廣告를 活用합시다

※新聞廣告를 結婚寫眞帖 첫머리에 붙여서 먼 훗날 子女에게 펼쳐보이는 즐거움을 準備하세요

結婚式廣告擔當

求職

家庭敎師

結婚式

朴鳳來氏長女 朴政三君 日時 73年4月16日 後2時 場所 鍾路禮式場

安丁煥氏長女 安敬義君 日時 73年4月16日 後2時 場所 鍾路禮式場

임팔용씨次男 임정웅군 日時 73年4月16日 오전11時 場所 육지여시장(공작실)

이상은씨三女 이남희양 日時 73年4月16日 오전11時 場所 육지여시장(공작실)

박춘교씨男 석영복군 日時 73年4月15日 오후3시 場所 육지여시장(공작실)

박옥순씨女 안회자양 日時 73年4月15日 오후3시 場所 육지여시장(공작실)

이범승씨女 이명순양 日時 73年4月15日 오후2時 場所 육지여시장2층(소회실)

신동규씨男 신언규군 日時 73年4月15日 오후2時 場所 육지여시장2층(소회실)

김용복씨男 김현균군 日時 73年4月16日 오전11時 場所 육지여시장2층(소회실)

허복순씨次女 황수연양 日時 73年4月16日 오전11時 場所 육지여시장2층(소회실)

이순금씨長女 조영회군 日時 73年4月16日 오후1時 場所 육지여시장3층(학실)

양회정씨長男 양애승양 日時 73年4月16日 오후1時 場所 육지여시장3층(학실)

강민회씨四男 강신길군 日時 73年4月16日 오후1時 場所 육지여시장1층(호실)

이순상로든것들의사하나밝히도 라오라 부부 협

유연희 할머니 양 (75) 1월 1일 작고 (653) 3기동 연락 부모

李泳均 작성하고 돌아오라 부모

李榮穆 동대생의 판보 (59) 작고하여 가보 (2630)

봉하 학교에나 학생시다 라오라 협

민 영위독지간일 일에 화하지않 (정답) 급히귀가비합 시부모

이 순상로든것들의사하나밝히도 라오라 부부 협

염갑순씨長女 황지매양 日時 73年4月16日 오후1時 場所 육지여시장1층(호실)

강신길군 부모

李泳均 작성하고 돌아오라 부모

李榮穆 동대생의 판보 (59) 작고하여 가보 (2630)

유연희 할머니 양 (75) 1월 1일 작고 (653) 3기동 연락 부모

劇場

人

超滿員謝禮 ★史上最高의名作! <쿼바디스> 로버트·테일러 메보라·카/데오·겐 뉴서울 (시소극장)

계림 (울지六)

서울 (영풍존)

코리아 (영풍존)

극동 (前아에네)

金星 (남영동)

한일 (종로二)

太陽은 가득히 (11월부터)

쏘南珍 리사 이날 (15일하루)

太平原兒 南大門 (15일公開 시경앞)

파고다 (종로二)

羅勳兒 김희숙 오스카 (14일 (15일 영랑리)

大決鬪 연홍 (14부터 동보존)

尾行者 청계 (14속의 아개의 청계六)

7人의新婦 명륜 (12부터 영륜동)

벤허 (12일부터 명륜동)

世紀의 名畫

東亞詩壇 Ⅲ 恨

東亞案內 東亞家具 (東亞)

東亞案內 東亞家具 (東亞)

東亞案內 東亞家具 (東亞)